

불교미술의 교리적 정의와 현대화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불교위원회가 주최하고 동국불교미술인회와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현대화, 신인용등 불교 미술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어 주

고 한국불교미술의 시대적 흐름을 진단했다. 강씨는 이날 발표에서 삼국시대전부부터의 역사적 배경을 지역 양식과 개인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작행위 즉 통일신라 고전양식이나 조선시대의 퇴화된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획일적인 불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강씨는 개인양식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대에 회화보다는 조각분야가 개인양식의 시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

안하고 자비스러운 것이 한국 불상의 특징"이라고 분석하며 지역적 시대적인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불교미술의 교리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목정배(동국대)교수는 △모사나 모조 보다는 깨달음의 인초적 모습을 참의해야 한다. △문헌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리, 사상에 합당한 조상조형의 창출 △원시불교의 수형상, 대승불교의 구제상이 뚜렷한 작품의 창조등이 균형있게 작품화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

한 주제를 들고 나온 최완수씨(간송미술연구소장)는 "단절된 전통의 계맥을 복원적으로 이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며 불교미술계의 적당주의와 상업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꾸준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던 불교미술전람회(조계종이 격년제로 시행)와 관련한 신인의 등용 문제는 홍윤식(동국대 박물관장)교수에 의해 거론됐다. 홍교수는 이날 '불교미술인의 등용과 불미전'을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

소년소녀가장등기...내달 2일까지 운현궁미술관



◇경봉스님이 남긴 단 한점의 10폭 병풍 '심우송'

근대고승 경봉스님의 작품중 단 한점만 남긴 「심우송」과 「반야심경」 여초, 공능, 월전선생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마음선원 윤산자(지인장 혜안)이 개최하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초청 한마음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서는 수묵화, 채색화를 비롯 금·은분을 사용한 그린 수안스님의 작품과 함께 경봉스님의 유작등 개인소장가들이 내놓은 근현대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소개된다.

'나의 그림은 기도'라며 그림과 수행을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안 스님의 작품들은 선과 동심세계의 해탈은 정서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초조 작품을 소개되는 대가들의 작품중 특히 눈길을 끌 경봉스님의 「심우송」은 경봉스님이 단 한점만 남긴 10폭 병풍으로 세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것.

불교미술

전통과 시대성 '집중조명'

동국불교미술인회 세미나 모방·적당주의 반성계기

목을 끌었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로 첫 발표에 나선 강우방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근대화를 철저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화의 과제에 단면하게 되었다"

내지 시대역행"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이어 김리나(홍익대)교수는 '고대불교 조각의 한국적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대 불상속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를 집중 조명했다. 김교수는 "한국인의 마음에 그려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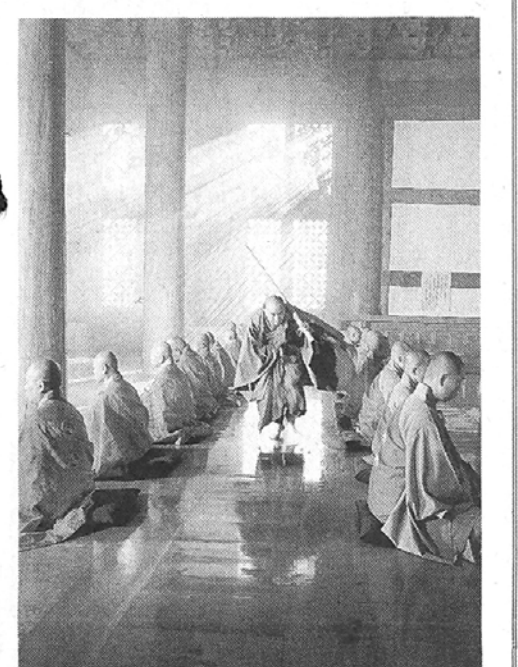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이자 현대를 대표하는 불모(佛母) 석정스님은 이날 '불교미술의 시대적 조명과 전통의 맥'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불교미술은 지극한 신심과 꾸준한 정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개인적 창의력과 경건 사상에 부합한 작품의 창조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해 불미전의 긍정적 기능과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교수는 "불미전은 응용문이란 외형적 성공은 이루고 있지만 학문적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여운이 남는다"며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국대학교에 불교미술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미술계의 노력이 충분히 보여 졌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주제의 복잡성이 갖는 세미나의 한계도 지적됐다. 불교미술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내용적인 고민'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권정화, 김영재, 김익홍, 조정우, 보관스님, 한상주씨등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임연태 기자)



대한민국사진전 우수작 '참선'

28일~5월10일 문예진흥원서 전시

불교사 선암스님(한국불교신문사 사진부장)이 출품한 '참선'이 한국사진작가협회회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사진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상 수상작 '참선' 외에도 특선작 공덕회씨의 「무심」, 입선작 김익홍씨의 「성도」, 박노래

시와 음악 함께하는 봉축 현대불교문학회 시낭송회

불교문화포교원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안)가 개최한 부처님오신날 시낭송회가 지난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낭송회에서는 오현스님, 정유스님, 성우스님, 청화스님등 중진 승려시인과 현대 불교문학회 회원들의 시가 발표됐다.

또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정석봉씨의 대금연주와 심진스님의 축하 노래공양도 함께 펼쳐져 시성과 음악으로 봉축의 자리를 만들었다.



◇김수영 작 '보덕업'

덴마크 禪화가 만날기회

다음달 2일까지 '서울-코펜하겐전' 열려

불교의 禪 사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덴마크의 화가 3명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조각가 박찬갑씨가 주관 덴마크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서울-코펜하겐」 전시회가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현궁미술관(766-7967)과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중앙일보 문화센터 운현궁 갤러리(744-4412)에서 잇따라 열린다.

"하늘새"를 주제로 한 박찬갑씨의 조각 작품과 함께 회화작품을 선보일 덴마크의 작가는 토르벤 헤른, 오립 로렌버그, 에스 크로반등. 이들의 작품은 각자의 서정성과 탐미적 성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들을 내놓지만 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표현

금강산절경 화폭에 김수영씨 5번째 개인전

30여년동안 금강산만을 그려온 서양화가 김수영씨의 다섯번째 개인전이 지난 22일부터 4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금강산, 그 찬란한 보석」. 금강산 1만2천봉의 전체모습을 담은 4m짜리 거대 화면의 「금강산전도」 '표훈사' '명경대' 등 관화 6점을 포함,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관동별곡이나 조선시대 명시(名詩)에서 익히 들었던 절경들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였다.

찬불가 발표회 개최

5월7일, 충지중 불교총지중(총리원장 안호)

강)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 찬불가 발표회를 5월7일 충지사법당에서 개최한다.

'찬불가를 통한 포교의 활성화'라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지사 가족법회회원을 중심으로 각 사원의 교도들이 각종 찬불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엄정토변상도' 어떤 작품인가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된 「화엄정토변상도」는 비단바탕에 폭 58.5cm, 높이 1백31.1cm 크기의 13세기 중반작품이다. 2개월간 이 불화의 관독에 매달렸던 홍윤식 교수는 이 불화는 아래쪽에 아미타여래 3상, 석가여래 비로사나불 등의 5여래상이 늘어 있으며 중간에는 경전을 펼쳐 읽고 있는 사자(持物)를 손에 든 일곱비구가 그려져 있다. 또 위쪽에는 하

관련 변상도, 관음이나 지장 보살도 등이었다. 따라서 이

번에 발견된 '화엄정토 변상도'는 고려불화 양식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교수는 "신라이후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결합된 예를 보여주는 사찰로 분석사가 대표적이라면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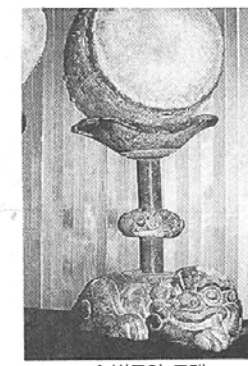
화엄·정토 결합한 획기적 자료

52여래와 경전 깊어진 비구 "새로운 형식"

"주제와 양식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불화 일뿐 아니라 고려중기 불교의 화엄정토 사상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그린 불화"라며 이 불화는 불화연구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획기적 작품이라고 평했다. 「화엄정토 변상도」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양미술 컨설턴트인 독일인 클라우스 나우만이 소장하고 있다.

원호, 자불등은 이 두 사상을 융합해 수용한 대표적 고승"이라며 "이번에 화엄정토 변상도가 발견됨으로 화회의 영역에서 표현된 두 사상의 결합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정토 변상도」는 오는 7월 중앙일보사와 호암미술관이 공동개최하는 '대 고려전'에 출품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불교민속용구 '한자리에'

절에서 사용하는 의식용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5월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동국대 박물관과 통도사,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하는 「장엄의 마, 불교민속의식구전」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

재현도 함께 펼쳐진다. 강연은 5월3일 오전10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홍윤식, 정명호, 하정경, 김정우, 장경희씨가 강사로 나선다. 또 같은 날 오후3시에 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영산보살존자가 영산재의식을 시현하기도 한다.

물 좋고 경관 좋은 곳에 사찰 하실 분

..... 워커힐 호텔에서 구리시 쪽으로 500m (4차선도로변)

..... 남향에 시야가 탁트인 한강이 한눈에 들어옴(미사리, 강동, 송파, 잠실 롯데월드까지).....

..... 암반생수·교통편리

..... 임야:600평 대지:60평 건평:60평

..... 매가:5억 5천만원, 전세 1억 5천만원

연락처 : (02) 452-2644 김인화 (주인직접매)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째 뒤집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려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著,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도서관주사 서울 중로구 청진동6번지 ☎(02)720-9372 · 3 Fax(02)723-0646

地藏菩薩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누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야!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독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체국 : 011213-0068986 김행수